

# 진짜 '자연 속 · 문화 속 학교'가 있다



"자연을 체험하는 학교는 많지만, 자연 그리고 전통문화와 함께 하는 학교는 충효분교밖에 되지 못했다."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는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도 인정하는 명품 학교다. 농사짓고 1일 '체험학습' 정도가 아니라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끝장을 본다. 5·6학년쯤 되면 모내기하는 손길에 연물이 붙어간다. 국악을 배우면 방학에 2주간 국악캠프까지 진행한다. 작년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합격생까지 배출했다. 국립전통예술중 타입전공은 1년에 전국에서 7~9명(전체 신입생 75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다. 수시 정시 합쳐 3000명 넘게 선발하는 서울대 입학에 비할 바가 아니다.

충효분교(교장 신미숙)에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1·6학년 대상으로 여름방학 국악캠프가 열렸다. 마지막 날인 9일엔 충효분교 충효관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신나는 판공 공연도 실시했다.

국악캠프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학교 주변 생태환경 탐방 과정(곤충 살펴보기, 스트링 아트 등)도 함께 실시

하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도 진행했다. 김희정(충효분교 6학년) 학생은 "풍물연습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모두 함께하니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실력도 많이 는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국악캠프 작은음악회에 참석한 4학년 한 학부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함께 풍물놀이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방학 중에 국악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충효분교 국악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충효분교 풍물동아리 소속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합격한 당시 6학년 김하연 학생은 풍물관구부 담당 교사의 권유로 4학년 때 처음 장구를 치기 시작해 교내의 공연 및 대회에 참여하면서 전문 국악인의 꿈을 키웠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 아쟁, 대금, 작곡, 타악, 민요,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음악연극 등 각분야 전국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모인다.

## 광주 충효분교, 여름방학 맞아 2주간 국악캠프 농사짓고 국악 배우며 '전문 국악인' 길 걸기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특성화 학교를 지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동초 충효분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일함 마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 국악캠프는 문화예술특성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예술인 풍물판굿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가치 함양 및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자 마련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 체험을 함께하며 협동과 배려,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동초 신미숙 교장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동초 충효분교는 우리의 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갈 수 있는 문화재 해설사프로젝트 및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창의성, 인성 함양 및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효분교는 작은 학교지만 국악 외에도 27개로 유명하다. 자연 속 학교로 모자라 학교 눈에서 모내기와 추수, 탈곡은 물론 곡식으로 떡까지 만든다. 2018년 학생 수 12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농사'를 시작했다. 거의 1년간 진행되는 이 가나인 체험 학습엔 학생, 학부모, 교사 가릴 것 없이 함께했다. 정확한 세지는 없지만 많은 날에는 100명 정도가 모여 북적북적 농사를 짓는다. 이웃 주민들도 벼를 베고 떡메를 들었고 교육감도 밭을 들고 나섰다.

이후 학생 수는 40명을 넘나들고 있다. 1학년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벼농사만 여섯 번을 거친다.

또 하나는 힙트페타와의 인연이다. 충효분교 학생들은 2016년 5월 망월도역 힙트페타 추모비 건립 기념행사에서도 위트진 힙트페타의 부인 엘렐트라유트 브람슈테트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리코더로 입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했다. 2017년 5월25일엔 고 힙트페타의 활약에 대한 감사 편지를 엘렐트라유트 브람슈테트 여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브람슈테트 여사의 답신은 2017년 11월2일 학교에 전달됐다. 브람슈테트 여사는 "편지를 읽고 울고 또 울었다"며 "보내준 학생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효분교에 학생이 입학하면 교사들은 "충효분교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작은 학교지만 이제 자연 속에서 가족처럼 즐겁게 생활해 보자"고 말한다.

매년 봄엔 신입생과 함께하는 미니 입학식이 열린다. 지난해 2명, 올해 2명이 입학했다. 중간에 들어오는 전학생도 많다. 충효분교 전교생은 올해 1학기 기준 41명이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 반에 12명 정도까지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한다. 지난해 분교장을 역임한 김선영 교사는 "학년이 2명이라 친구가 없을까 걱정될 수 있지만 입학하면 전교생이 가족처럼 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인호 기자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운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박치홍)이 광복절(8·15) 등 공휴일에도 회관 학습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공휴일 개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며 광복절을 포함해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등이 대상이다. 회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시설물 자체 점검과 근무인원 확충을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평화와 감동 재현을 주제로 광주통일관 주관 4.27 남북정상회담 실시모형(디오라마 기획전)을 9월11일까지 열어 통일에 대한 열원과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회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공간과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 최수중 씨 토크 콘서트 '호응'

갈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는 세태 속에서 가정의 '탈상대리교육' 기능 회복과 부모-자녀 간 소통 방법을 모색해 보는 대회의 장이 펼쳐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2019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 이그 무대이다.

전남도내 학생과 학부모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연기자 최수중 씨를 초청해 나선희 전 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토크 콘서트가 펼쳐졌다. 2부에서는 경기 이천중 김정식 수석교사가 강사로 나서 핸드폰으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특히,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 최수중 씨는 얼마 아예는 '하루인 내편'이라는 주제로 사회자와 진솔한 대화를 거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 씨는 평소 부부 사이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화상 환자 돕기 앨범 발매 등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고 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석한 학부모·학생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최근 KBS TV 드라마 '하루인 내편'에서 열연한 최 씨는 2011년부터 (사)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

수중과 함께하는 전남 연가캠프'를 통해 전남 학생들의 연기 및 영상 제작 지도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로 위촉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행사에 앞서 장석웅 교육감은 최수중 위원장과 함께 순천 예곡초 유스호텔에서 진행된 '2019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 이그 무대이다. 전남도내 학생과 학부모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최수중 씨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학부모들은 다양한 핸드폰(스마트폰) 어플 실습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강사로 나선 김정식 수석교사는 상대를 존중하는 핸드폰 사용법과 가족이 함께 건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 실습을 통해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을 들은 학부모 송은영 씨는 "두 딸과 함께 왔는데 뜻밖에도 우리 세 모녀의 사연이 소개되고, 최수중 씨로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지혜를 들을 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생 교육은 교직원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인문학교육, 인성교육 등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화순 다사랑관악양상블 피서객 위한 한여름밤 콘서트

화순교육지원청 다문화 예술동아리 공연 펼쳐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지난 8월 9일 초·중학교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로 다문화 예술동아리 다사랑관악양상블이 화순금호리조트에서 피서객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화순 다사랑관악양상블은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부족한 화순 관내 초·중·다문화학생 학생과 학부모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자기재능개발을 돕고자 2015년 10월 창단되어 현재 화순지역 다문화 30여명 학생과 학부모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다.

이번 연주는 한국어도 서툰 학부모도 읽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이 그동안 연습을 통해 익힌 연주가 아

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기기 위해 기획되었다. 비록 피서객을 위한 버스킹 연주였지만 공연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다사랑관악양상블은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실력을 쌓고자 1박2일 여름집중캠프를 진행하며 그동안 연습한 곡과 피서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즉석공연을 포함해 10곡을 60분 동안 공연을 펼쳤다.

다사랑 관악양상블은 평소에도 사회 복지시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공연과 다문화페스티벌 찬조 출연 등 다양한



고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화순교육지원청 최원식 교육장은 "음악을 통해 각자의 재능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다사랑관악양상블 단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무대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